

최근 한국의 수출부진과 회복: 구조적 원인과 특징

이수영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ooyoung.lee@kiep.go.kr, Tel: 044-414-1157)

정 철 무역통상본부 본부장 (cchung@kiep.go.kr, Tel: 044-414-1184)

금혜윤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Tel: 044-414-1205)

차례

1. 머리말
2. 한국 수출의 장·단기 추세
3. 수출부진의 원인: 경기순환적 측면
4. 수출부진의 원인: 구조적 측면
5. 수출부진의 세부적 양상
6. 결론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수출추세는 무역폭락, 회복, 둔화, 하락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배경에는 경기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있음.
- ▶ 2012년 이후 지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현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증가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무역의 구조적 변화는 2012년 이후 한국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고 주요국과의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과 함께 한국상품의 현시비교우위 역시 감소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음.
- ▶ 한편, 2015년 이후 2년에 걸쳐 나타난 한국의 수출부진과 최근 4개월 사이의 회복은 신흥국의 경기부진 및 국제유가의 부침으로 인한 수출단가변화의 영향이 크며 향후 국제유가와 경기회복의 향방에 따라 수출 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기순환에 더욱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 기업규모, 산업, 교역상대국, 상품유형별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무역둔화시기에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 2016년 4분기의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비중이 2012년 1분기에 비해 5.4%p 증가함.
 - 2015년의 수출하락은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두드러졌으며, 선진국에 대한 자본재와 소비재 수출은 오히려 증가함. 전체 수출이 부진한 중에도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갔음.
-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과 여건에 최적화된 무역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2016년 11월부터 4개월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국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무역폭락과 회복,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성장을 0.9%의 '둔화'기를 거쳐 2015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최근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의 가능성이 커졌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의 무역창출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2012년 이후 나타난 수출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회복의 원인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의 글로벌 무역 둔화와 하락은 세계적인 현상이나 한국의 수출부진이 특히 심각했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유가와 신흥국의 경기둔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순환적 측면과 세계수입수요 및 무역장벽의 변화, 보호무역주의 조치 심화 등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한편 무역둔화의 구체적 양상을 교역상대국, 품목, 기업크기별로 나누어 분석함.¹⁾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국제무역의 둔화 및 하락을 동반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반세계화·반무역 정서의 확산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2016년에 나타난 브렉시트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등 새롭게 변화된 국제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이 보고서의 분석결과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2. 한국 수출의 장·단기 추세

■ [단기추세] 2016년 11월부터 4개월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17년 2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한 432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총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2012년 2월의 46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²⁾이나, 최근 경기회복 전망과 함께 향후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지난 5년간(2012~16년) 한국의 월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수출성장률은 전년동월대비 -19.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장기추세] 한국의 수출은 2008년 초까지 장기간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 추세에 큰 변화를 겪음.

1) 이 보고서의 주된 분석은 본원에서 출간 예정인 워킹페이퍼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에서 발췌함.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7. 3. 29).

- 한국 수출의 장기적 추세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9% 급감하였음.
-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순조롭게 회복하였으나 2012년부터 평균 성장률 0.9의 무역둔화 시기를 겪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유가하락과 함께 평균 -9.5%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 2분기 이후 수출성장률 하락폭이 감소하고 최근 4개월 동안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1. 2006년 이후 한국 수출의 기간별 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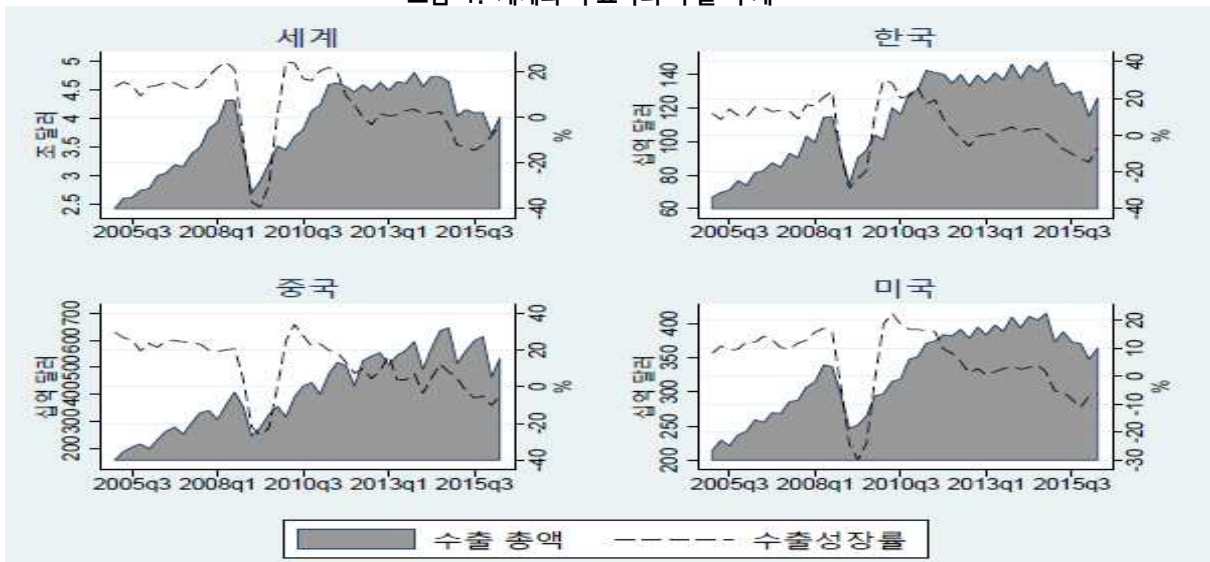
구분	기간	평균 수출성장률(%)
금융위기 전	2006q1~2008q3	15.2
무역 폭락	2008q4~2009q2	-20.9
폭락에서 회복	2009q3~2012q1	15.1
둔화	2012q2~2014q4	0.9
하락	2015q1~2016q1	-9.5
하락에서 회복	2016q2~2016q4	-3.4

주: 수출성장률은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자료(검색일: 2017. 1. 19)를 토대로 저자 계산.

- 최근 약 10년간 수출의 폭락, 회복, 둔화, 하락의 장기적인 추세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며 주요국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 1. 세계와 주요국의 수출 추세



주: 좌축은 수출금액, 우축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감률.

자료: IMF(<http://www.imf.org/en/Data>, 검색일: 2017. 1. 17) 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 최근에 관측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와 하락이 경기순환에 의한 단기적 현상인지 혹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때문인지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무역의 추세 전망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임.

3. 수출부진의 원인: 경기순환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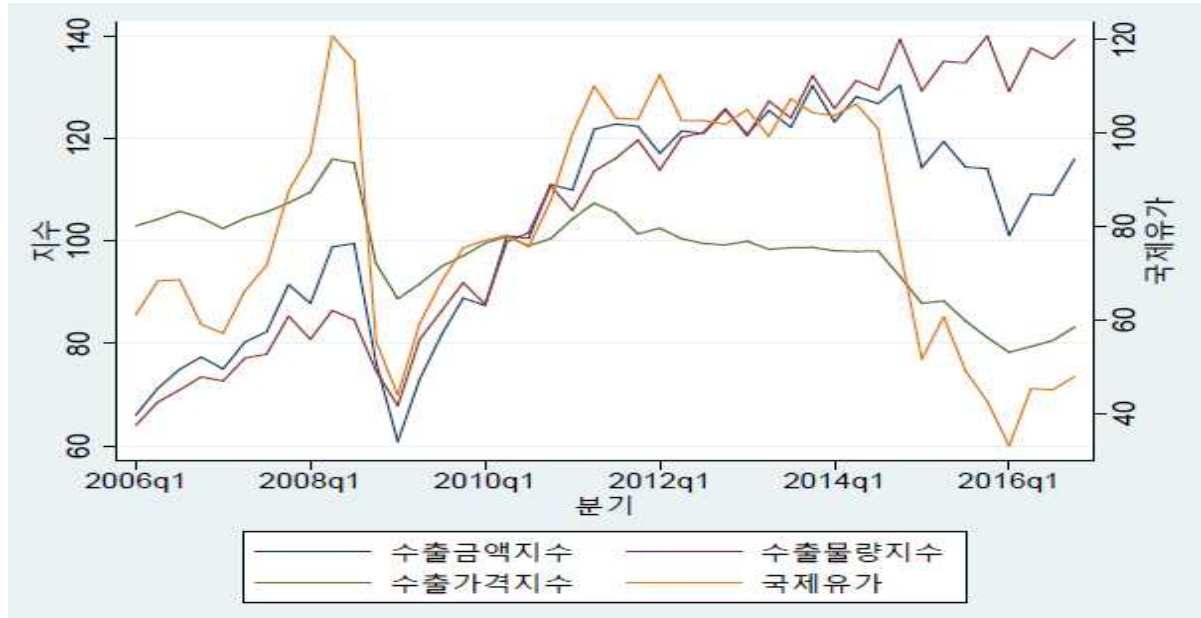
가. 국제유가 하락

■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국제유가 및 수출가격 하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국제유가는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2014년 말까지 수출금액과 국제유가는 동조적으로 움직여왔음.
- 2015년 초부터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출가격지수 및 수출금액지수도 함께 하락하였으나 수출물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부진은 2015년 이후 지속된 유가하락과 이로 인한 수출가격하락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2016년 2분기부터 국제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수출가격지수와 수출금액지수도 함께 회복되었는데, 향후 국제유가가 회복될 경우 수출가격 및 수출금액도 함께 회복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 수출금액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출가격지수 및 국제유가의 흐름

(지수단위: 2010년평균=100, 유가단위: 달러/배럴)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1. 23),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17. 1. 24)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2년 1분기와 2016년 4분기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산업에서 수출가격지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전기 및 전자기, 일반기계,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산업의 가격지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동 기간 수출금액이 증가한 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 화학제품, 일반기계 산업에 불과함.³⁾

3)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2. 15).

- 물가의 변동이 심한 산업 중 화학제품,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의 경우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의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여, 이들 산업의 가격변동이 세계시장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2016년 2월 배럴당 30.6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1월에는 배럴당 52.6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4분기에 배럴당 51.7달러, 4/4분기에는 50.1달러까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⁴⁾

나. 신흥국의 경기부진

-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주를 이루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지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 2년간 수출부진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⁵⁾
- 2015년의 전년대비 전체수출 감소액 462억 달러 중 신흥국에 대한 감소액이 308억 달러로 전체 감소분의 3분의 2를 차지함.
- 2017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2016년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성장세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⁶⁾

4. 수출부진의 원인: 구조적 측면

가. 세계수입수요의 구조적 변화

- 세계 및 중국의 소득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⁷⁾은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의 감소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의 장기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354에서 2010년 이후 1.052로 급락함. 이는 세계상품에 대한 장기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함. 중국의 소

4) Bloomberg(www.bloomberg.com, 검색일: 2017. 3. 29), WTI 기준 평균전망치.

5) 국가분류는 IMF 기준(2016. 10)에 따라 신흥국은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에 해당하는 152개국을 의미하며, 선진국은 Advanced Economies에 해당하는 39개국을 의미함.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11. 18), 오늘의 세계경제, pp. 2~6 참고. IMF 역시 2017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8%와 4.6%로 전망하면서 2016년(선진국 1.6%, 신흥국 4.2%)에 비해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봄. IMF(2016. 10), *World Economic Outlook* 참고.

7) 세계의 소득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은 GDP로 측정하는 세계소득이 1% 증가할 때,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정도(%)를 일컫는 개념으로 세계 소득과 국제무역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함. 이때 단기탄력성은 단기간 소득변화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고, 장기탄력성은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소득변화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므로, 구조적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탄력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득-수입수요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⁸⁾

- 세계무역의 소득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 변화는 소득과 무역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맞물려 있음.

표 2. 소득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

구분	한국상품			세계상품			
	주체/기간	2001q1 ~2016q2	2001q1 ~2008q4	2010q1 ~2016q2	2001q1 ~2016q2	2001q1 ~2008q4	2010q1 ~2016q2
세계		2.172	2.354	1.052	1.8	2.186	1.133
중국		-0.905	2.892	-0.082	0.039	2.275	-0.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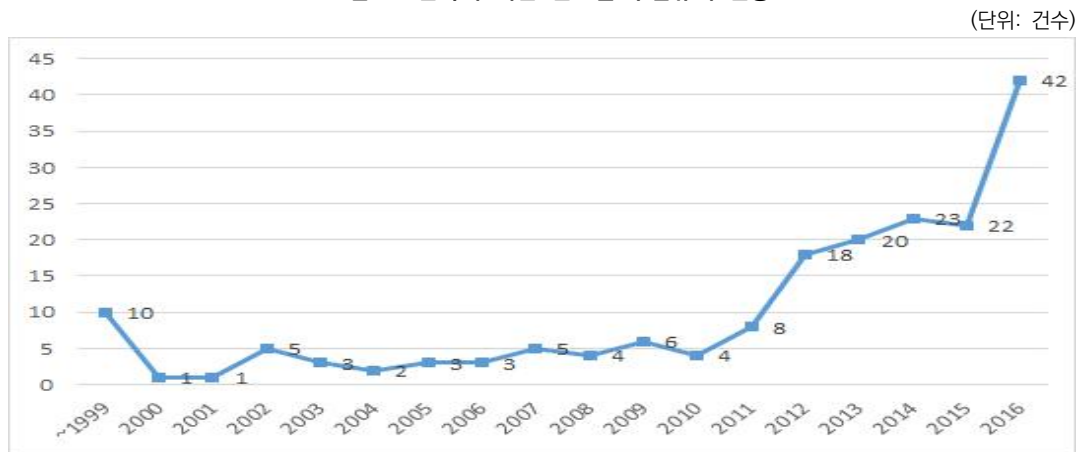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www.bloomberg.com, 검색일: 2017. 1. 26); IMF(http://data.imf.org, 검색일: 2017. 1. 26)를 토대로 저자 계산.

나. 보호무역조치의 증가

■ 2017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9개국이고 규제건수는 183건(조사 중인 46건 포함)에 달하며 연간 건수는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

- 규제 국가는 인도(33건), 미국(23건), 중국(14건), 태국(12건) 등의 순이며, 특히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가 총 137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74.9%를 차지함.
- 2016~17년 중에만 16개국에서 45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철강제품(24건)과 화학제품(15건)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룸. 2016년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관세율이 19~59%에 이룸.⁹⁾

그림 3. 한국에 대한 연도별 수입규제 현황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ntb.kita.net, 검색일: 2017.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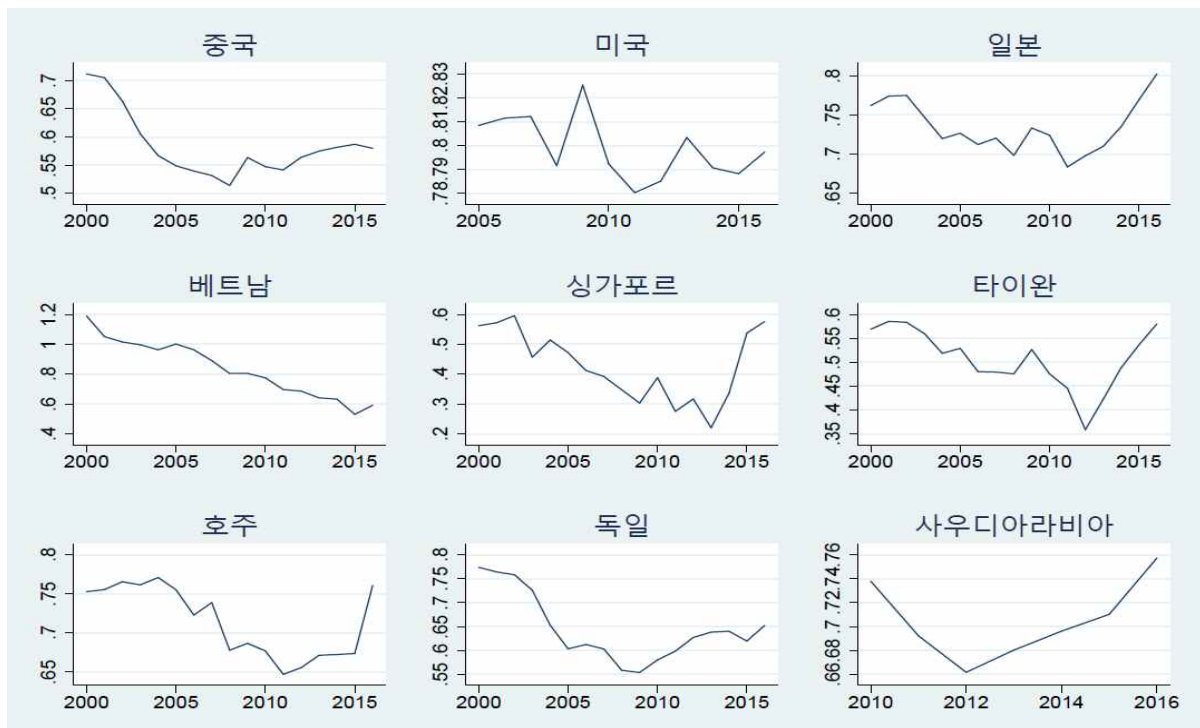
8) 세계의 장기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소득과 수입수요의 관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음. 마찬가지로 중국의 장기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나, 그 수치가 급감하였음.
9)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http://ntb.kita.net, 검색일: 2017. 3. 29); WTO.

- Global Trade Alert가 집계한 보호무역 관련조치 건수의 누적집계 역시 현재 미국이 993건, 아세안 국가 316건, 중국 154건에 이릅니다.¹⁰⁾

다. 2012년 이후 주요국의 무역장벽 증가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력방정식과 무역 통계를 사용하여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우리나라의 양자간 무역장벽을 측정¹¹⁾한 결과 2011년 이후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주요 상대국과의 양자간 무역비용 추이



주: 좌측은 관세동치로 측정된 무역장벽임. 2016년 수치는 2016년 상반기 평균을 나타냄.

자료: IMF DOTS(<http://www.imf.org/en/Data>, 검색일: 2017. 3. 9), Bloomberg(www.bloomberg.com, 검색일: 2017. 3. 9), 홍콩통계국(<http://www.censtatd.gov.hk/home.htm>, 검색일: 2017. 3. 8), 싱가포르통계청(<http://www.singstat.gov.sg/>, 검색일: 2017. 3. 9), OECD STAN(<http://www.oecd.org/sti/ind/stanstructuralanalysisdatabase.htm>, 검색일: 2017. 3. 8)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10) Global Trade Alert(<http://www.globaltradealert.org/>, 검색일: 2017. 1. 4).

11) 양자간 무역장벽의 측정을 위하여 Novy (2013)의 방법론을 사용함. 이 무역장벽은 관세동치(Tariff Equivalent)로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추정함.

$$\tau_{ij} \equiv ((t_{ij}t_{ji}) / (t_{ii}t_{jj}))^{1/2} - 1 = ((x_{ii}x_{jj}) / x_{ij}x_{ji})^{1/(2(\sigma-1))} - 1$$

이때 t_{ij} 는 i 국에서 j 국으로 수출할 때 직면하는 무역장벽이고 t_{ii} 는 국내무역 장벽을 나타냄. x_{ij} 는 i 국에서 j 국으로의 수출이고, x_{ii} 는 i 국의 국내무역, 즉 국내총생산에서 총수출을 제외한 값을 나타냄. σ 는 대체탄력성 계수로 본 자료에서는 9로 정하였으나 관련문헌에서 알려진 5-10 사이의 값 중 어느 값을 사용해도 무역장벽의 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비중)은 중국(23%), 미국(12%), 일본(8%), 베트남(5%) 등임.¹²⁾ 이 가운데 2011년 이후 유일하게 무역장벽이 감소하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무역둔화시기에도 꾸준히 무역이 증가함.
- 2012~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평균이 0.9%로 정체되어 있었으나 세계적 보호주의 조치와 국내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및 국경내장벽(Behind Border Barriers)이 늘어나면서 무역장벽이 증가했음을 반증함.¹³⁾

라. 현시비교우위 감소

■ 수출둔화 시기인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22개 제조업 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현시비교우위가 감소하는 추세임.

- 한국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현시비교우위(RCA)지수가 1보다 큰 산업)은 22개 제조업 중 9개 산업임.¹⁴⁾
-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 핵심은 1을 기준으로 비교우위 여부가 가려짐. 따라서 2012~15년의 평균 변화율 감소세가 수출산업이 수입산업으로 전환되거나 할 정도로 비교우위가 악화된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에서 각 산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수출에서 해당산업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추세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현시비교우위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

표 3. 한국의 대세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 추이

ISIC(rev.3) 2단위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15 평균변화율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4	2.75	2.71	2.68	2.86	2.85	2.66	-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4	3.41	3.51	2.58	2.50	2.47	2.35	-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12	2.20	1.92	1.93	1.86	1.79	1.57	-6.6%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1.27	1.40	1.53	1.61	1.64	1.57	1.44	-3.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33	1.25	1.51	1.63	1.47	1.45	1.37	-5.5%

1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7. 4. 3).

13) [그림 7]에 나타난 무역장벽의 증가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무역둔화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무역장벽의 증가요인으로 보호주의조치 이외의 요인도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14)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 체제를 검토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수로, 값이 1보다 크면 해당국가의 k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i국가 k품목에 대한 대세계 RCA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RCA_{iw}^k = \frac{X_{iw}^k / X_{ww}^k}{X_{iw} / X_{ww}}$$

X_{iw}^k : i국가 k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ww}^k : 전세계 k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iw} : i국가 대세계 총 수출액, X_{ww} : 전세계 총 수출액

표 3. 계속

ISIC(rev.3) 2단위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2~15 평균변화율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33	1.25	1.51	1.63	1.47	1.45	1.37	-5.5%
그 외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0	1.11	1.12	1.11	1.20	1.22	1.30	5.3%
전자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8	0.90	1.02	1.28	1.42	1.25	1.17	-3.0%
1차금속제조업	1.22	1.19	1.20	1.09	0.95	1.12	1.02	-2.4%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1.03	0.80	0.94	1.03	0.90	0.96	1.00	-1.0%
담배 제조업	0.65	0.69	0.60	0.66	0.57	0.69	0.98	1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4	0.91	0.99	1.03	1.07	1.06	0.93	-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81	0.86	0.88	0.95	0.98	0.95	0.91	-1.4%
섬유제품 제조업	0.96	0.92	0.90	0.94	0.90	0.84	0.77	-6.3%
사무용, 회계 및 컴퓨터기계 제조업	0.76	0.82	0.67	0.58	0.61	0.66	0.67	4.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7	0.83	0.79	0.53	0.48	0.46	0.49	-2.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29	0.32	0.32	0.36	0.39	0.42	0.42	5.2%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41	0.41	0.42	0.46	0.48	0.44	0.42	-3.2%
가죽; 가방, 핸드백, 마구류와 신발	0.28	0.25	0.23	0.28	0.32	0.25	0.24	-5.4%
음식료품 제조업	0.14	0.15	0.16	0.17	0.16	0.16	0.16	-1.0%
가구제조업; 기타제조업	0.19	0.19	0.18	0.19	0.18	0.16	0.16	-5.0%
의복; 모피가공	0.13	0.13	0.13	0.15	0.15	0.15	0.14	-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2	0.02	0.02	0.03	0.03	0.03	0.03	-3.7%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 11).

5. 수출부진의 세부적 양상

가. 기업크기별 수출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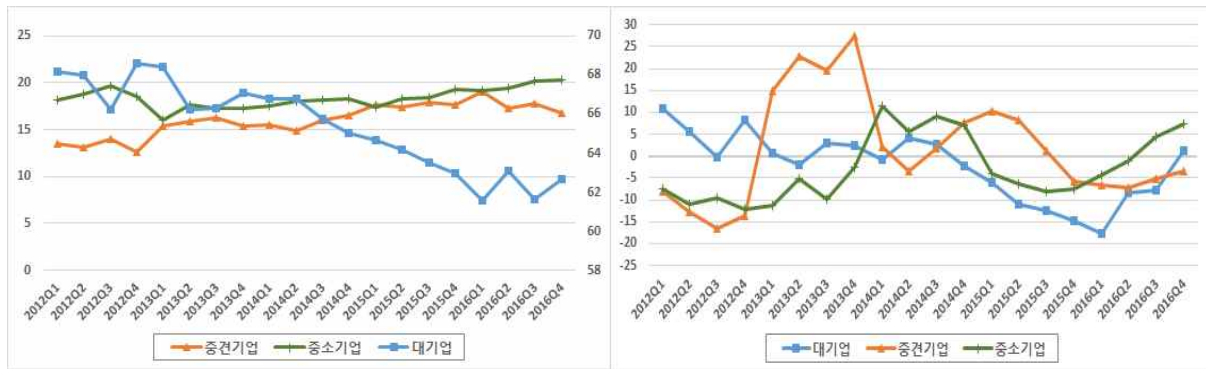
■ 2012년 이후 수출둔화와 하락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수출에서 보다 두드러짐.

- 2016년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3%, 중소기업 19.8%, 중견기업 17.7%, 기타 0.2%이며,¹⁵⁾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64.4%, 자본재 22.7%, 소비재 12.7%의 비중을 보임.
-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함.

15)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에서 기업의 크기별 분류는 중소기업청의 기준을 따름.

중소기업은 2013년 수출부진을 겪은 이후 부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화학산업과 일반기계산업의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견고한 회복세를 나타냄.

그림 5. 한국의 기업형태별 수출비중과 수출증감률
(기업형태별 수출비중(%)) (기업형태별 수출증감률(%))



주: 기업형태별 수출비중에서 좌측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우측은 대기업.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의 월별 기업구분별 수출통계(검색일: 2017.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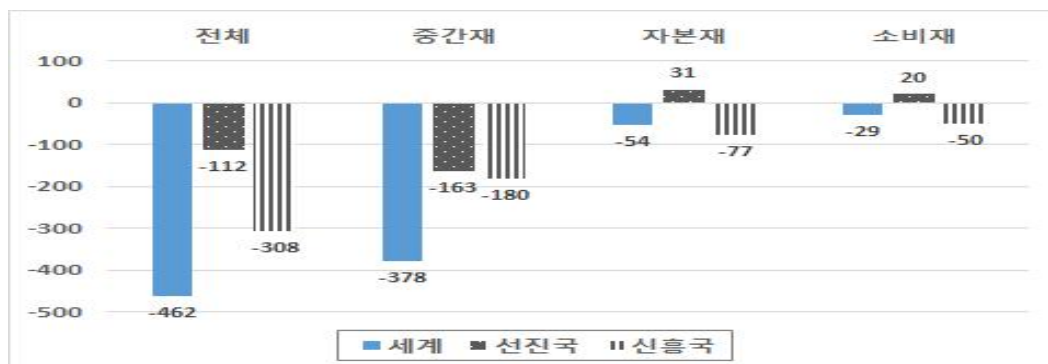
나. 교역상대국 및 수출재화별 수출추이

■ 2015년 기준 한국 수출의 신흥국 시장 비중은 57.2%이며,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의 비중이 60.8%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중간재 비중(35.8%)에 비해 높은 편임.¹⁶⁾

- 2015년의 전년대비 전체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자본재와 소비재 수출은 소폭 상승한 반면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모든 상품의 수출이 감소함.

그림 6. 2015년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한국의 상품 유형별 수출 증감액

(단위: 억 달러)



주: 그림의 증감액은 전년대비 값임.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 11).

16) 2015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7%와 57.2%이며 2009년부터 그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음(UN Comtrade(<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 11)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 2015년 한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8.1% 감소하였는데 특히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소, 베트남에 대해서는 증가함.
- 2015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9%¹⁷⁾에 머물렀고 수입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 감소분을 소비재 증가분으로 상쇄하면서 전체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음.

표 4. 주요 상대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감률(2015년)

(단위: 전년대비, %)

구분	전체수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세계	-8.1	-10.3	-4.0	-4.1
중국	-5.6 (26.0)	-7.2 (30.6)	-0.5 (23.8)	-3.5 (8.1)
미국	-0.7 (13.3)	-7.9 (9.7)	-4.8 (12.3)	16.6 (32.7)
일본	-20.6 (4.9)	-23.3 (5.6)	-13.4 (2.7)	-12.0 (5.1)
베트남	24.4 (5.3)	23.0 (6.4)	33.5 (3.8)	16.7 (2.3)

주: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구분은 BEC 분류에 따르며, () 안은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 11).

다.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수출추이

- 서비스수출 역시 최근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입은 비교적 강건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표 5. 서비스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총 서비스수출		운송		여행		건설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2008	913	27.5	449	33.7	98	59.4	137	41.1
2009	728	-20.3	289	-35.8	98	0.5	146	6.3
2010	833	14.4	392	35.9	103	5.3	120	-17.7
2011	909	9.2	372	-5.2	125	20.8	155	29.2
2012	1,035	13.9	417	12.1	134	7.6	197	27.3
2013	1,037	0.2	378	-9.4	146	8.9	204	3.4
2014	1,121	8.1	383	1.4	178	21.9	194	-5.0
2015	977	-12.8	343	-10.5	152	-14.7	122	-36.8
2016	928	-5.0	264	-22.9	172	13.1	110	-10.5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무역 세부류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3. 24)를 토대로 저자 작성.

17) IMF(2016. 4), *World Economic Outlook*.

- 2016년 전자상거래 수출은 19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자상거래의 전체 수출은 일반 수출과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상품 구성 중 소비재 비중**이 61%로 의류(28%), 뷰티(11%), 패션(6%), 전기기기(6%) 등의 상품이 주를 이룸.¹⁸⁾

표 6. 전자상거래의 수출추이와 수출기업 구성
(수출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출대상국	2014	2015	2016
중국	303	762	1,543
미국	92	114	127
일본	86	74	100
ASEAN	43	52	64
EU	23	18	27
중남미	9	8	10
중동	8	8	7
합계	645	1,109	1,967

(수출기업 구성)

(단위: %)

기업크기	비중
대기업	6
중견기업	2
중소기업	66
기타기업	26
합계	100

자료: (수출추이)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http://kosis.kr/>, 검색일: 2017. 3. 24), 한국은행 환율 통계(<http://ecos.bok.or.kr/>, 검색일: 2017. 3. 24)를 토대로 저자 계산. (수출기업 구성) 관세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자료(검색일: 2017. 1. 7)를 토대로 저자 계산.

6. 결론 및 시사점

- 2012년 이후 나타난 수출둔화와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수출과 세계수입수요의 상관관계는 2010년 이후 약화되어 세계소득증가에 따른 한국의 수출 증대효과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장기 소득-수입수요 탄력성이 약화됨에 따른 수출의 구조적 변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을 추정된 결과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무역장벽이 꾸준히 증가한 바, 비관세장벽 및 국경내장벽 등의 보호주의 기조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한국상품에 대한 세계의 수입규제 건수는 2011년 8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2016~17년 중에만 16개국에서 45건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개시됨.
 - 수출둔화와 함께 주요 상품의 현시비교우위도 완만한 감소세에 있어 수출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한편 2015년 이후 2년에 걸쳐 경험한 한국의 수출부진과 최근 4개월 사이의 회복은 국제유가의 부침으로 인한 수출단가변화 및 신흥국의 경기부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18) *: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http://kosis.kr/>, 검색일: 2017. 3. 24), **: 관세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계(검색일: 2017. 1. 7). 온라인쇼핑동향 자료의 전자상거래 수출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결과임.

- 이 시기의 국제유가는 최저 배럴당 30.6달러(2016년 2월)를 기록할 정도로 낮아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의 괴리가 발생하였고, 수출금액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15년의 수출하락시기에 수출 감소분의 3분의 2가 신흥국에 대한 수출에 기인하였으며 신흥국의 성장세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수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순환에 더욱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을 포함하여 아세안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기체결한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고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¹⁹⁾

- 2016년 현재 한국의 무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나, 베트남과의 무역장벽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이후 한국의 수출둔화는 대기업에서, 2015년 이후 수출부진은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두드러짐. 또한 서비스수출은 상품수출의 부침과 함께 움직인 반면,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4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선진국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견기업의 대신흥국 수출 감소폭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신흥국 경기부진은 중견기업과 소비재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재의 비중이 61%를 차지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선진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의 활용이 증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특징과 여건에 최적화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출폭락시기와 비교함으로써 향후 수출 및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국제유가와 신흥국 경기의 향방에 따라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향후 수출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출 하락과 국제무역의 약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어디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one size fits all’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 주체 및 기업규모, 산업, 상품유형, 교역상대국별로 차별화된 수출전략과 맞춤형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KIEP

19) 관세청(<http://www.customs.go.kr/kcshome/main/index.do>, 검색일: 2017. 4. 4)에 따르면 한·아세안의 FTA 활용률은 2016년 누적 52.3%, 한·베트남의 FTA 활용률은 2016년 누적 36.9%에 불과하여 활용률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